

## 승리할 경영 전략

잠언 21:30-31, 사도행전 19:17-22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반년 동안의 은총을 감사하는 주일로서, 초실절이다. 우리는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을 붙였는데, 승리할 경영 전략이다. Business Strategy인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오늘 메시지는 많이 복사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다. 원래 경영이라는 말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기업 활동을 전체적, 계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전략을 경영전략이라고 한다. '계획, 연구하여 일을 해 나감,' 그런 뜻도 있다. 계획을 세워서 기초를 닦아 집을 세운다는 뜻도 있다. 경영이라는 말은 경제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면서 나의 경영, 현장 경영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의사, 기술자, 경영자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인지를 두고 서로 토론했다.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직업이 제일 오래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수술을 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자가 말했다. 자기 직업이 더 먼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것도 없는 혼돈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경영자가 자기 직업이 더 먼저라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했다. "그 혼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웃음)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관리한다, 뭘 만들어낸다, 계획을 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오늘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깊이 누리시기 바란다. 사람에게 경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안 될 수밖에 없다. 각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경영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다. 모든 사람이 힘을 쓰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경영과 계산도 완벽할 수는 없다. 잠언 16:9에 말씀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정말 완벽하게 계산한 줄 알았는데 재난이 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대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이 있었는데 해가 저물어간다. 하루종일 메시지를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좀 줘라. 배가 고파서 야단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머리 좋은 빌립이 계산했다. "저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려면 200테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 하나를 가져다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다. 사람의 계산과 경영은 참고는 할 만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이 최고의 경영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문이 딱 막히니까, 인본주의를 쓰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유럽의 문이 열리지 않나? 가는 곳마다 제자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났지 않나? 이것이 승리하는 경영 전략이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경영 전략이 있다. 자기 경영과 현장 경영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승리하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잠언서가 말씀하는 내용을 묵상하고자 한다.

### 1. 자기 경영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특히 전도자가 어떻게 자기 경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자기 경영을 승리하는 것은 간단하다. 세 가지 서밋으로만 가면 된다. 이것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헤매는 것이다. 렘넌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란다.

(1)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신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경영 전략에 이르게 된다.

① 이사야 14:24-27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겠느냐."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가 손을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며 막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여호와와 경영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 28:29에 말씀했다. "여호와와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오늘 본문 잠언 21:30에 말씀했다.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자 없다." 이사야 40:28에 말씀했다. "여호와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호와와 경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다.

②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영인가? 모든 경영을 여호와의 손에 맡길 때, 그때 최고의 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지혜를 짜내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잠언 16:3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다. 신앙하는 사람이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2:20이라고 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2:1-11에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될 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모셔야만, 만나야만 하는 것이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하나님이 그 가슴에 떨어져야만 그 공허가 메워질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경영인 것이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다.

이것을 믿으라.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꼭 아이와 비슷하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고 말을 더듬으면서 '엄마, 엄마' 할 때 밖에 나가 보면, 자기가 꼭 스스로 걸겠다고 엄마 손을 뿌리친다. 그런데 두 발자국을 건다가 조그마한 돌맹이 하나에 걸리면 넘어져서 영영 운다. 인간이 꼭 그렇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2만 불 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만 찾아다닌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첫 번째 경영을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그 영적 서밋으로 살고 있으면,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생활을 하는데도 성공시키는 기능 서밋이 되었다. 다윗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니까 돌 던지는 기능 서밋이 되었다. 이것을 누리면 된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 누리는 데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 포인트다. 위, 아래, 옆 사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넓이, 높이, 깊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이 기능 서밋으로 가는 지혜로운 경영이다. 잠언 15:22에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했다. 잠언 20:18에도, "의논함으로 경영을 성취한다."고 했다.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면 만남을 누리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3)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오직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잠언 21:31에, 싸움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했다고 했다. 이제는 전쟁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41:38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전 세계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와 후대가 당당히 서게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경영 전략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있으면, 거기에 도달하기는 쉬운 것이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돌보아 준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보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엉뚱한 것을 한다. 온갖 자기 잔꾀를 부리고 자기의 것을 쌓고 탐닉한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하는가 싶다. 나의 인생 경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한다.

## 2. 현장 경영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특히 전도자가 누려야 할 현장 경영이다. 삶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어떻게 현장을 경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네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1)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다. 이것은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다. 이 절대 목표를 붙잡는 것이 비결이다. 사도행전 1:8에 말씀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수 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자신의 절대 목표를 붙잡게 된다. 사도행전 9:15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한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목표로 삼았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과 현장을 두고 가진 절대 목표였다. 이것을 기능, 지역, 산업에서 찾아내어서 승리하라는 말씀이다. 절대 목표를 찾는 것이 승리하는 경영의 시작이다. 절대 목표를 찾아서 하나님과 포커스가 맞으면 끝나는 것이다.

(2) 절대 목표를 찾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노예 현장이 절대 현장이었다. 요셉이 노예 현장에 안 들어갔으면 절대 경영을 못 배웠을 것이다. 인생 경영, 경제의 경영,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경영을 배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노예 현장이 그래서 절대 현장이었다. 모세에게는 광야가 절대 현장이었다.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사도행전 17:1, 18:4, 19:8에서 회당에 들어간 것이다. ‘저 램넛트를 살리면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낸 것이다.

(3) 들어가서 이제는 절대 헌신을 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3오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절대 헌신에 도전하는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을 살리고 간수를 살리고 바로를 살려내는 헌신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세 명의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헌신을 했던 것처럼 절대 헌신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했는데,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었고 절대 헌신이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헌신이다. 나 나름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현장 경영이다.

(4) 그러면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절대 제자 아손이 찾아졌다. 생명과 제산을 다 드려서 전도자를 도왔던 절대 제자였다.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가 찾아졌다. 19장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졌다. 마침내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같은 절대 제자 시스템이 세워진 것이다. 이런 절대 제자가 우리들의 사업 현장에 세워지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절대 제자가 우리의 직장 현장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경영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누리지게 되기를 성경은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경영이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드렸다. 자기 경영과 현장 경영이다. 현장 경영은 무엇인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현장을 보라. 절대 현장에서 절대 헌신하면 된다. 절대 헌신하는 가운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나온다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경영, 최고의 경영이 무엇인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최고의 경영은 여호와를 누리는 것인데, 여호와를 누리는 방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기도와 그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하는 전도인 것이다.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경건의 훈련이다. “육체의 훈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훈련”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제 램넛트가 훈련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이때 전 교인이 훈련에 같이 힘을 모으면, 정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전도를 체험하게 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증인 될 만큼 증거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의 경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바울이 이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사도행전 19:21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살리는 것과 함께 전 세계를 본 것이다. 로마서 15:23에는, “나는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 사도행전 23:11에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24에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나의 로마, 나의 서바나를 찾고, 여기까지 정복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되라는 것이다. 최고의 경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경영 전략을 가지게 되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한 가지만 기억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그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전략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실로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 내 현장을 어떻게 경영하면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인류 공영을 위해 쓰려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경영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전략,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주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막혀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오니, 주여,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경영 전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전도제자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